맛보고 즐기는 수도사 힐링 축제 '피로 싹!'

수도사, 10월 26일 경내서
'원효대사문화예술제' 개최
진미령 · 이소원 · 임지민 공연
한중일 사찰음식 대향연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수도사를 찾은 지역민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힐링의 공간 수도사에서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민들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 나갔다. 사찰음식의 깊은 맛과 다채로운 공연은 일상의 무게에 눌린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활력을 선물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가 10월 26일 경내 해수관음전 앞 특설무대에서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체험관) 개관 7주년을 기념해 '원효대사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지친 지역주민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음악회와 사찰음식 전시회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주지 적문 스님과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은 "21년간 수도사에서 소임을 보면서 누구보다 우리 마을, 우리 평택을 사랑하게 됐다"며 "수도사와 체험관이 한 단계 더 도약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축사에서 "2017년 개관한 체험관은 원효학당, 원효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원효 대사의 사상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 됐다"며 "이번 원효대사 문화예술제에서도 원효대사 깨달음의 노래를 통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원효 대사의 사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안중 쇠울림 풍물단의 흥겨운 풍물놀이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북과 징,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박수치고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다.

이어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소속 이소원·임지민·진미령 가수가 구성진 보컬과 맛깔난 창법으로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다. 세 가수의 매력 넘치는 무대에 현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고, 공연의 열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음악회의 대미는 원효대사문화예술제 명성에 걸맞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무애무 공연이 장식했다.

같은 날 체험관 특별전시장에서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중·일 사찰음식 대향연' 특별전시가 진행됐다. 전시에는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이 직접 만든 한국불교 사찰음식을 비롯해 일본·중국 사찰음식 등 총 77점이 공개됐다. 전시장 한켠에는 시식코너를 만들어, '연자조림' '단호박깻잎튀김' '연잎차' 등의 사찰음식을 관람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중·일 사찰음식 대향연 전시는 27일까지 이어졌다.

예술제에 동참한 권금순(86) 할머니는 "수도사 덕분에 공연도 즐기고, 사찰음식 전시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79돌 전국교법사단 "청소년에게 불교 씨앗 뿌리자"

10월 25일 창설 79주년 기념법회
진현 스님 등 신임 교법사 품수도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이 창설 79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들이 청소년 포교를 통한 건학이념 구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양동효)은 10월 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설 7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불교교육연합회장(동국대 총장), 양동효 전국교법사단장과 전국 종립학교 교법사, 교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치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종단적 지원을 약속했다. 선업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제대로 양육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교법사들의 역할이 크다"면서 "조계종 역시 청소년 포교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청소년 포교를 이끌어 나가겠다. 또한 현장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웅 불교교육연합회장은 축사에서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를 강조했다.

양동효 전국교법사단장은 "동물들은 태어나서 눈 뜨고 처음 만나는 대상을 엄마로 여긴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도 교법사를 통해 처음 불교를 만나게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부처님이고 나의 말이 불교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수행 정진해야 한다. 어린 불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념법회에서는 신임 교법사들의 품수식도 진행됐다. 선업 스님은 신임 교법사 진현 스님(정광고), 원경 스님(능인중), 문수 스님(능인고), 일연 김가연(광동고), 범지 송범주(광동중)에게 교법사 자격증서를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불교교육연합회 임시총회와 종교 교육 연수, 제52회 교학연구발표 등도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불자배우 강부자, 은관문화훈장 수훈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서…김한민 감독, 대통령 표창


강부자


김한민

불자배우 강부자 씨가 10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강 씨는 〈친정엄마와 2박3일〉 〈목욕탕집 남자들〉 등 연극, 방송, 텔레비전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해 왔다.

법명이 '보덕화'인 강 씨는 아침마다 예불을 올리고, 촬영 이동 시에도 108염주를 돌리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높은 신심으로 2007년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통령 표창에는 김한민 영화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이순신 3부작 〈명량(2014)〉 〈한산: 용의 출현(2022)〉 〈노량: 죽음의 바다(2023)〉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 감독은 북한산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과 20여 년 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가는 불자이다. 그는 원경 스님에게 '관월'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올해 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감독은 "영화감독 데뷔 전 여러 부침을 겪고 있을 때 원경 스님과 인연이 됐다. 좌선대 올라 참선하고, 심곡암에서 시나리오 작업도 했다"며 "조계사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화계사불교대학을 다녔다. 요즘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관음기도를 하고 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한편,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차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정부 포상이다.

신중일 기자

호국홍익사, 불교 문화탐방 '통·신·보·안' 성료

10월 20일 강화 법왕사 · 보문사서
사찰 문화 체험, 스트레스 해소로



군장병들이 불교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전투 스트레스를 날리고 사찰문화를 체험했다.

호국홍익사(주지 관묵 스님,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군종실장)가 10월 20일 강화도 법왕사와 보문사를 참배하는 불교 문화탐방 프로그램 '통·신·보·안'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관묵 스님이 장병들에게 사찰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전투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기획했다.

'통·신·보·안'은 원래 군에서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용어다. 그러나 관묵 스님은 통신보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옛 문화가 '통'하고, '신'문화를 받아들여, 함께 '보'고 느끼며, '안'고 가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켰다.

행사를 주관한 관묵 스님은 "장병들에게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통·신·보·안'을 기획했다"며 "프로그램 후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전투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군민(君民) 유대감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탐방에 동참한 장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박현욱 병장(병849기)은 "다양한 사찰을 방문하고 자연과 사찰의 조화에 감탄했다"며 "오감이 즐거웠던 문화탐방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현 상병(병850기)도 "문화탐방에서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니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동국대 건학위, 지역미래불자장학금 수여

WISE캠 불교동아리 40명에
총 4000만원 장학금 전달해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WISE캠퍼스 장학생에게 단주를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10월 29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D501호에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종 미륵암(주지 일공 스님)이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루나',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불교동아리 '바라너지', 글로벌사회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르마' 장학생 3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대한불교서명종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가 간호대학 불교동아리 '메타'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미륵암 주지 일공 스님은 "매순간마다 열심히 생활하여 훌륭한 동국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동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서울캠퍼스에 이어 WISE캠퍼스에도 원법사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생과 인연을 맺게 되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오늘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 여러분들은 미륵암과 원법사와 큰 인연을 맺게 되었으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동국인으로서, 한국의 미래불자로서 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수서경찰서 '불심원' 첫 법회

경승실장에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한 달 2회 정기법회로 경찰 포교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의 노력으로 5년 만에 문을 연 수서경찰서 법당 '불심원'이 첫 법회를 열고 경찰 포교의 씨앗이 싹트길 염원했다.

비구니회는 10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 내 불심원에서 첫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심원은 수서경찰서 내 법당으로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개원했다. 경찰서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며 여유공간 부족으로 기존 법당이 사라진 지 5년 만에 다시 일궈낸 소중한 도량으로, 본관 3층에 자리잡았다. 경승실이기도 한 불심원이 문을 연 배경에는 특히 전국비구니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전국비구니회가 적극 나서 지원하면서 회장 광용 스님이 경승실장도 맡게 됐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사부대중이 불사금을 모연, 인테리어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광용 스님은 "법당 개원으로 수서경찰서 불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행활동을 펼칠수 있게 됐다"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기법회를 열고 법문과 함께 개인적인 고민과 질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여성불자회, "김장으로 자비 나눠요"

11월 16일 조계사 경내서
전통 계승, 자비나눔 함께

한국의 전통 월동 준비행사인 '김장'이 축제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가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2024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을 비롯해 전국여성불자회원 70명과 자립준비청년 30명 등 100여 명이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2000kg에 달하는 김장 재료를 각 20kg씩 나눈 뒤, 직접 김장김치를 만든다. 이 중 1300kg의 김장김치는 자립준비청년과 미혼모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비나눔을 위한 김장김치 후원도 받는다. 동참비는 김장김치 1포기당 2만원이다. 김장축제에는 개인 및 가족(3인 이내) 단위로 네이버 폼(https://naver.me/53ITVcMu)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참비는 10만원이다. 또한 동참자들은 친환경 축제를 위해 장갑, 팔토시, 앞치마 같은 개인물품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문의: 02-723-3330 (전국여성불자회 사무국)

김민재 기자

의성노복, 난치병 환아 의료비 지원

10월 24일, 고운사서
치료비 600만원 전달



의성노인복지관이 지역 내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의료비를 전달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 산하 의성노인복지관(관장 휴담 스님)은 10월 24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대웅전에서 지역 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비 6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의성사암연합회장 자원 스님 등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주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정에 매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